업보 벗어나려면 잠재의식 다 녹여야

☞ 19면에서 계속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례한 생각도 너무 많이 떠올라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니까 더 떠오르고 그냥 놔두니까 너무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제가 고의적으로 하는 생각도 아니고 누군가가 생각을 대신 하고 있는 것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습을 없애려고 '한마음 주인공, 너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도 그 습이 매우 질기게 없어지질 않아요. 어찌 해야 좋을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답 우리가 목에다 걸고 다니는 염주는 찰나찰나 돌아가는 것을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백팔번뇌를 비유해서 해놓은 거라고 하는데 그걸 백팔 번뇌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면 목석이죠? 육체가 없으면 무효죠? 생명이 없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나는 것을 망상이라고만 밀어붙이겠습니까? 생각나는 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재료라고 봐야죠. 팥죽을 끓이다가 보면 익으려고 할 때 팥죽 방울이 수없이 올라오죠? 그럼 그걸 다 망상이라고 하겠습니까? 팥죽 방울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는 팥죽이 끓다 보니 익으려고 나오는 건데 말입니다.

그래서 팥죽 솥에 팥죽 방울 일어나듯이 망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게 망상이 아니라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거는 바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재료다. 팥죽을 익히기 위해서 팥죽이 끓는 거와 같이 그건 성장력을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꾸 일어나게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일임해서 놓으라는 거죠. 그걸 망상이라고 하면서 떨쳐 버리려고 몸뚱이로 아무리 해봤자 몸뚱이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지는데 뭐 남는 게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내가 망상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망상이지 아니 누가 망상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는지, 그것도 사람이 지어 놨을 테죠. 그것에 왜 흔들립니까? 그래서 망상은 바로 여러분이 물리가 터질 수 있게 하는 수련이자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끊는 게 아니라 그대로 여여하게 넘어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습이라고 말할 것도 없지만 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습을 없애기 위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걸 알리기 위해서 습이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왔던 관습으로 그런 거니까 그 관습을 없애라, 습이 본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올라오려라도 '나오게 하는 것도 너니까 안 나오게 하는 것도 너 아냐?' 하고 그렇게 그냥 놓아 버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업식이라고 이름해서 부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업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이러냐고 그러는데, 그러는 걸 보면 웃음이 슬그머니 나와요. 인간으로서 확딱 벗어나지 왜 저렇게들 못 벗어나고 저러나 싶고, 그냥 자유스럽게 뛰어야 되는데 자유스럽게 뛰질 못하게 마음을 외려 붙들어 매놓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자유스럽게 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나오기까지 엄청난 그 과정을, 수 없는 억겁동안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도 모자라서 여기에 쓸리고 저기에 쓸리고 해서 진짜 부처님의 골수를 모르게끔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만들 겁니까? 그래서 부처는 너무 가까워서, 위 속눈썹하고 아래 속눈썹하고 붙어서 깜박거리듯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아주 가깝게 자기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애써 바깥에서 찾으려 하거나 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을 참 나라는 내 자부처가 하고 있을 뿐이다 하고 믿고 다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림 · 최주현

'나' 세우지 않고 모두 놓는게 무심도리

망상은 성장재료…끊으려 말고 되놓아라

스님들이 목탁을 치는 이유

문 다름이 아니라 스님들이 왜 목탁을 치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불교신자라는 분도 명쾌히 답을 해주지 못해서요. 황당한 질문인줄 알지만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답 우리 스님네들이 예불을 모실 때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뜻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스님들은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목탁을 치면서 염불을 하고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또는 종을 치면서 예불을 모십니다.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스님들 하시는 것을 가만히 지켜본다면 참 묘한 법이 많습니다. 자기 주장자인 선장이 종소리를 들을 때 깨우치게끔, 또는 부처님 상호를 볼 때 심안이 밝아지게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냐? 바로 예불을 올리는 사람, 각자 여러 스님들과 각자 여러 신도님들 모두에게 자기 자신이 하는 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양쪽으로 목탁 소리가 나게 하는 건 여러분의 귀요, 머리는 두뇌라고요. 목탁채로 여러분 머리를 깨게 하려고, 그 목탁이 당신 머리를 치는 게 지금 머리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치고 있다 이 소리죠.

그러니 스님들이 목탁을 치고 염불을 하는 것을 그냥 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 숨은 뜻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은 왜 고통 겪어야 합니까

문 주변을 바라보면 참으로 눈물겨운 고통이 많습니다. 본심은 청정하다했는데 중생의 고통은 왜 있는 것입니까. 모두가 애초의 본래 여여한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순 없는 건지요. 성인들께서도 같이 아파하신다고 하는데도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존재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생들에게는 고통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까. 불성이 온 우주에 깃들어 있다면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불국토로 화하는 그 끝은 언제일까요. 혼란한 세상과 고통스런 삶들을 알수록 눈물이 더 많아집니다. 왜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끝은 언제인지 대 자비의 답변을 구합니다.

답 지금 지구가 초월해서 들어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공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관습에 의해서 의식을 갖고선 그것을 쥐고 매달려서 놓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업이 생기는 거고 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 자기 마음으로 지어 가지고 자꾸 벽이 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인(因)을 만드는 거고 과(果)를 만드는 겁니다. 삼독을 녹이지 못하고 착을 두고 인을 만들어 버리니까 과를 받을 수 밖에요. 선의 인과든 악의 인과든 인을 지었기 때문에 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선도 착이요 악도 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데 목숨이 다한다 할지라도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든지 다 똑같을 겁니다. 자식을 잘못되라고 하는 부모는 아마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도 역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요, 때려도 자비요, 때리지 않아도 자비요, 사랑을 해도 자비요, 사랑을 안 해도 자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조상이나 부처님의 조상이나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마음도 어디 고정돼 있지 않으며, 조상의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으며, 우리들의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삼천년 전 그때의 역대 부처님들 마음과 역대 조상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이 고정돼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낮게 보고, 무엇을 높이 보고, 무엇이 고통이고 무엇을 즐거울이라 규정지을 게 없다는 거죠. 즉 말하자면 지구가 쉴 사이 없이 빛보다 더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병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업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유전성이 붙을 게 뭐 있으며 생사가 걸릴 게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중(中)세계에서 알아야 하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네가 이 세상에 나온 때문인 줄 알아라, 네가 나왔으니 수억 겁을 통해서 너를 진화시키고 형성시킨 너를 보배로 삼아라. 너부터 알아야 상대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나로 들어가는 원리를 알 수 있느니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한 발짝 떼어 놨으면 또 한 발짝 떼어놓게 되고 연방 바람처럼 구름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도리를, 그 흥겨운 도리를 모르고 항상 집착에 잠겨 있고 관습에 잠겨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이거는 못하고 저거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분별하면서 길을 걷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디를 가게 되면 부적을 해야 삼재가 들어도 애고가 안 생긴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사를 가는데 부적을 해 가지고 가야 문제가 안 생긴다고 하고, 날짜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살기 허덕거리는데 거기에다 그런 걱정까지 덧붙여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게! 그렇게 가당치 않은 일들이 어디 한두 가지뿐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안과 밖을 다 조복을 받아라. 내 몸 안에 있는 생명들, 의식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어라, 바깥에 주어진 상황들도 흡수해서 나로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안과 밖을 둘 아니게 조복 받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 나한테 닥치는 대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할 거 있으면 하고, 분수에 넘치게끔 쫓아가서 뺏으려고 하지도 말고, 분수에 넘치게 빼앗아 먹으려고 하지도 말고, 내 앞에 닥치는 것은 버리지도 말고, 갖지도 말고 다만 내 앞에 닥친 것을 선으로 생각하는 놈도 그놈이요 악으로 생각하는 놈도 그놈이니 악으로 왔다고 생각도 말고 선으로 왔다고 생각도 말아라 이겁니다.

그거를 몽땅 다 그놈이 한다고 생각하고 놓으신다면 하늘을 보고 허허 웃어도 그냥 공법이고 평등하고 여여하게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여여하다는 걸 아신다면 그냥 모두 갖추어 있는 것도 알게 되요.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만 가지 헤아릴 수 없는 만법을 들이고 내는 데도 손색이 없죠. 흐뭇하고 묘하고 참으로 진실한 자기의 보배주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써먹지 못하고 마음이 가난하니깐 삶도 가난한 겁니다. 혼자 무거운 거를 들려니 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선 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의 고통을 진정으로 알 수도 있고 건질 수도 있고, 그렇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근본이 내게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행해 나가신다면 가슴 아프게 눈물 흘리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여 자비와 지혜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 매주 1천500여부의 현대불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득 싣고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키는 이들을 찾아가 등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 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기분좋은 여행, 펄스투어

예약 및 문의 : 02-3446-0410

불교유적 성지순례

정통 미얀마, 태국 불교성지순례 8일 : 210만원



일 정 : 인천-방콕-양곤(1)-파간(1)-만달레이-민군-만달레이(1)-양곤(1)-방콕(1)-아유타야-방콕(1)-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특급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인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미얀마 비자발급비(35,000원),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신비의 인도네시아(보로부두르) 불교성지순례 8일 : 160만원



일 정 : 인천-자카르타(1)-족자카르타(3박,보로부두르,프람바난)-발리(2)-인천
출 발 일 : [1차] 10월 29일, [2차] 11월 4일, [3차] 11월 18일, [4차] 12월 2일
포함사항 : 디럭스호텔 및 전일정 식사, 고급전용버스, 전일정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인천국제공항 출국세(25,000원) 현지공항세, 여행자보험
참고사항 : 음료수, 기사 및 가이드 팁 등 개인 비용 별도

중국여행

북경, 용경협(백화동)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북경(3박 천안문,자금성,만리장성,이화원,명13릉,천단공원,용경협)
특전 : 특급호텔(4성급) 이용,용경협,백화동,만리장성 케이블카,북경오리구이 서커스관람,태가촌석식(민속쇼관람),현지공항세,기사&가이드팁

서안, 아방궁 4일 39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서안(3박 아방궁,진시황릉,병마용갱,화청지,비림,성벽관광,박물관)
특전 : 일급호텔(건국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

상해, 항주, 소주 4일 399,000원 (매일출발)
일정 : 상해(홍구공원,임시정부청사,예원,외탄)-항주(1박 서호,영은사,육화탑) 소주(1박 발마사지,졸정원,한산사,호구사탑,실크공장)-상해(1박)
특전 : 일급호텔(4성급) 이용,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현지공항세,발마사지

일본여행

벳부온천 3일 549,000원 (금요일출발)
일정 : 벳부(2박 온천욕,아소산,원숭이쇼,지옥온천순례,유노하나전망대)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

운젠, 하우스텐보스 3일 549,000원 (목,토요일출발)
일정 : 운젠(1박 운젠지옥,무사마을,화산공원)-사세보(1박 하우스텐보스)
특전 : 일급온천호텔,식사,차량,입장료,가이드,하우스텐보스 1일 자유이용권

www.pearlstour.com

성지순례 / 할인항공권 / 맞춤여행 / 패키지 /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골프투어 / 국내여행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6-3 영동빌딩 4층 / 대표전화 : 02-3446-0410 / 팩스 : 02-3446-0414

펄스투어